



PORSCHE



## 포르쉐 2017 LA 오토쇼

프레스킷

# 목차

<b>연비와 배출량</b>	<b>3</b>
4개의 월드 프리미어 스포츠카 및 신형 카이엔 미국 데뷔 <b>포르쉐, 새로운 제품 라인업으로 독보적인 스포츠카 브랜드 위상 강화</b>	<b>4</b>
680마력, 전기 모드만으로 49km 주행 가능한 포르쉐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 <b>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가장 강력해진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b>	<b>6</b>
더욱 강력해진 퍼포먼스와 GTS 전용 장비 <b>신형 포르쉐 718 GTS, 더욱 업그레이드된 디자인과 스포츠 퍼포먼스</b>	<b>9</b>
순수 정통의 911 에디션 <b>절제의 미학, 신형 포르쉐 911 카레라 T (911 Carrera T) 공개</b>	<b>11</b>
새로운 엔진, 새로운 새시, 혁신적인 차량 제어 콘셉트, 폭넓은 연결성 <b>포르쉐, 3세대 신형 카이엔</b>	<b>13</b>

## 연비와 배출량

**718 박스터 GTS:** 복합연비 9.0–8.2 l/100 km, 도심연비 12.3–10.9 l/100 km, 고속도로 연비 7.0–6.6 l/100 km; CO<sub>2</sub> 배출량 205–186 g/km

**718 카이맨 GTS:** 복합연비 9.0–8.2 l/100 km, 도심연비 12.3–10.9 l/100 km, 고속도로 연비 7.0–6.6 l/100 km; CO<sub>2</sub> 배출량 205–186 g/km

**911 카레라 T:** 복합연비 9.5–8.5 l/100 km, 도심연비 13.5–11.5 l/100 km, 고속도로 연비 7.1–6.8 l/100 km; CO<sub>2</sub> 배출량 215–193 g/km'

**카이엔:\*** 복합연비 9.2–9.0 l/100 km, 도심연비 11.3–11.1 l/100 km, 고속도로 연비 8.0–7.9 l/100 km; CO<sub>2</sub> 배출량 209–205 g/km

**카이엔 S:\*** 복합연비 9.4–9.2 l/100 km, 도심연비 11.8–11.3 l/100 km, 고속도로 연비 8.4–8.0 l/100 km; CO<sub>2</sub> 배출량 213–209 g/km

**카이엔 터보:\*** 복합연비 11.9–11.7 l/100 km, 도심연비 16.4–16.2 l/100 km, 고속도로 연비 9.5–9.3 l/100 km; CO<sub>2</sub> 배출량 272–267 g/km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 복합연비 3.0 l/100 km; 복합 에너지 연비 17.6 kWh/100 km; 복합 CO<sub>2</sub> 배출량 69 g/km

\* 범위는 타이어 사용에 따라 달라짐

4개의 월드 프리미어 스포츠카 및 신형 카이엔 미국 데뷔

## 포르쉐, 새로운 제품 라인업으로 독보적인 스포츠카 브랜드 위상 강화

포르쉐는 오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LA 오토쇼에서 4개의 월드 프리미어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 '718 박스터 GTS'와 '718 카이맨 GTS'는 각 라인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이며, 순수 정통의 911 에디션인 '911 카레라 T'는 스포츠카 성능과 경량 구조 최적화에 주안점을 둔 모델이다. 또한, 포르쉐는 3세대 풀체인지 신형 카이엔을 미국 시장에 처음 선보인다.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래그십 모델: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

신형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는 포르쉐 라인업 중 가장 다재 다능한 스포츠카다. 최고 출력 680마력(500k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스포츠 투리스모 모델 라인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평균 연비(유럽 NEDC 기준)는 3.0 l/100 km로 경제성 또한 탁월하다. 신형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는 최고 속도 310 km/h이며, 전기 모터만으로 최대 50km까지 주행 가능하다. 특히, 혁신적인 공간 활용과 탑클래스 스포츠카의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견비해 일상 생활에서 극대화된 실용성을 제공한다.

### 더욱 강력해진 파워와 역동적인 주행 성능: 포르쉐 718 GTS 모델

'718 카이맨 GTS'와 '718 박스터 GTS'는 2 인승 미드 엔진 스포츠카 세그먼트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스포츠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형 718 GTS 모델은 더욱 강력해진 2.5리터 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365마력(269kW)을 발휘한다. 차체를 낮춰주는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메니지먼트(PASM)와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및 포르쉐 토크 벡터링(PTV) 등과 같은 기본 사양의 장비들로 더욱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옵션 사양의 PDK 변속기 장착 시 정지 상태에서 100 km/h까지 가속하는데 단 4.1초가 소요되며, 최고 속도는 290 km/h에 달한다. 다양한 블랙 컬러 요소가 적용된 디자인으로 GTS 모델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 순수한 주행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경량화 모델 '911 카레라 T'

순수 정통의 스포츠카를 선호하고, 911에 열광하는 고객들을 위해 포르쉐는 신형 '911 카레라 T'를 제작했다. 1968년형 911 T 모델의 순수한 계보를 잇는 신형 911카레라 T는 스포츠카 성능과 경량화가 특징이다. 수동 기어 박스의 짧아진 변속비, 차체를 낮춰주는 액티브 PASM 스포츠 새시 및 다양한 전용 옵션을 장착해 스포티한 매력을 극대화했다. 최고 출력 370마력(272kW)의 6기통 엔진을 탑재한 신형 '911 카레라 T'는 중량 대비 마력이 3.85 kg/hp으로 민첩하고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보장한다.

## 스포츠카 성능, 편안함, 다양한 가능성을 선사하는 신형 카이엔 미국 데뷔

포르쉐는 신형 카이엔 모델을 미국에서 최초로 선보인다. 신형 3세대 카이엔은 6기통 터보 엔진을 장착한 340마력(250kW)의 카이엔과 440마력(324kW)의 카이엔 S, 그리고 V8 바이터보 엔진을 장착한 550마력(404kW)의 카이엔 터보 세 개 모델이다. 더욱 강력해진 엔진, 신형 8단 팁트로닉 S 변속기, 새로운 새시 시스템과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새로운 커넥트 기능으로 완전한 네트워크를 구현한 새로운 제어 콘셉트가 어우러져 스포티한 매력과 편안함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렸다. 디자인적으로 향상된 신형 카이엔은 새로운 제원의 휠 타이어와 리어 액슬 스티어링이 최초로 장착되었다. 또한, 액티브 사륜 구동, 포르쉐 4D 새시 컨트롤, 3챔버 에어 서스펜션과 전자식 롤 스태빌라이제이션을 기본 사양으로 장착해 온로드에서의 주행 성능이 더욱 개선되었다.

## 포르쉐, 계속되는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스토리

2017년에도 포르쉐는 미국 시장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3 분기 기준 총 45,952대를 인도하며 전년 동기대비 2.7%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마칸(16.3%)과, 신형 파나메라(52.5%)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실적은 포르쉐 제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다. 최근 미국의 시장 조사기관 J.D.파워가 실시한 자동차 상품성 만족도 조사(APEAL, Automotive Performance, Execution and Layout)에서 포르쉐는 13회 연속 전체 1위를 차지해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동차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포르쉐 911, 카이엔과 마칸 모델은 각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680마력, 전기 모드만으로 49km 주행 가능한 포르쉐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가장 강력해진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

포르쉐 AG는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 최초의 하이브리드 모델,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Panamera Turbo S E-Hybrid Sport Turismo)'를 새롭게 선보이며 하이브리드 모델 라인업을 더욱 강화한다. 4리터 V8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최고 출력 680 마력(500 kW)의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는 최대 토크 86.68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불과 3.4초가 소요되며, 최고 속도는 310km/h에 달한다. 평균 연비(유럽 NEDC 기준)는 3.0 l/100 km이며 전기 모터만으로 배출 가스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최대 49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는 성능과 효율성의 완벽한 조화는 물론, 실용성까지 겸비한 해당 세그먼트 내의 독보적인 모델이다. 독특한 디자인 요소와 함께 대형 테일게이트, 낮은 로딩 엣지, 늘어난 적재 공간 및 4+1 시트 구성 등 편안하고 넉넉한 공간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극대화된 실용성을 제공한다.

### 정지 상태에서 100 km/h까지 단 3.4초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를 통해 포르쉐는 이제 스포츠 투리스모가 지닌 하이브리드 기술의 엄청난 퍼포먼스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사륜 구동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는 918 스파이더 슈퍼 스포츠카로부터 계승한 부스트 전략(Boost Strategy)을 채택해 더욱 탁월한 가속력을 발휘한다. 550마력(404kW)의 V8 바이 터보 엔진과 136마력(100kW)의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1,400rpm에서 최대 토크 86.68kg.m을 발휘한다. 포르쉐 하이브리드 모델로 통합된 디커플러(Decoupler)는 전자 기계식으로 작동하는 전자 클러치 액추에이터(Electric Clutch Actuator)를 통해 빠른 반응 시간과 수준 높은 편안함을 보장한다. 빠른 변속이 가능한 8단 포르쉐 듀얼 클러치(PDK)는 기본 사양으로 탑재되는 사륜 구동 시스템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PTM)에 최적의 동력을 전달한다. 또한, 포르쉐 'E-퍼포먼스(E-performance)'기능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 km/h까지 가속하는데 단 3.4초, 200km/h까지는 8.5초가 소요되며, 최고 속도는 310 km/h 다. 이 같이 강력한 성능을 갖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극대화된 효율성까지 자랑한다. 평균 연료 소비량은 (유럽 NEDC 기준) 3.0 l/100 km이며, 전력 소비량은 17.6 kWh/100 km 이다. '파나메

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는 전기 모터만으로 구동 시 배출 가스 없이 최대 49km까지 주행 가능하며, 최고 속도는 140 km/h다. 에너지 전력 14.1 k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으며, 완충 시간은 충전기와 전원 연결 상태에 따라 2시간 24분에서 6시간까지 소요된다.

## 독특한 디자인, 어댑티브 루프 스포일러와 4+1 시팅 콘셉트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는 신형 파나메라의 혁신 요소들을 모두 제공한다. 디지털 포르쉐 어드밴스드 콕핏(Porsche Advanced Cockpit),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옵션 사양인 리어 액슬 스티어링을 장착한 포르쉐 이노드라이브(Porsche InnoDrive) 등 획기적인 어시스턴스 시스템을 포함한다. 주행 상황과 차량 설정에 따라 3단계 각도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는 루프 스포일러 역시 해당 세그먼트에서의 독보적인 혁신을 보여준다. 또한, 리어 액슬에서 최대 50kg의 추가적인 다운포스를 생성하며, 시속 170 km 이하에서는 포르쉐 액티브 에어로다이내믹(PAA) 센트럴 시스템 구성 요소인 에어로다이내믹 가이드가 작동되어 리어로 이어지는 루프 라인을 따라 스포일러를 -7도 각도로 유지시킨다. 시속 170 km 이상에서는 루프 스포일러가 1도 각도의 퍼포먼스(Performance) 포지션으로 자동 전환되어 주행 안정성과 코너링을 향상시킨다. 스포츠(Sport) 및 스포츠 플러스(Sport Plus) 주행 모드일 경우에는 90km/h 이상의 속도에서 루프 스포일러가 퍼포먼스 포지션으로 자동 전환된다. 또한, 포르쉐 액티브 에어로다이내믹은 시속 90 km 이상에서 파노라믹 슬라이딩 루프가 개방되는 경우 자동으로 루프 스포일러의 각도를 26도로 맞춰 난기류를 완화시킨다.

파나메라 라인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최상위 모델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는 아방가르드한 디자인 특징으로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루프 라인 덕분에 뒷좌석의 승하차가 더욱 편리해졌고 더 넓어진 헤드룸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넓은 전동식 테일게이트와 628mm의 로딩 엣지로 화물 적재는 더욱 용이해졌다. '파나메라 터보 S E- 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는 3개의 리어 시트로 구성된다.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된 2개의 양쪽 바깥 시트는 파나메라 모델이 추구하는 스포티한 성능과 편안한 승차감을 극대화시키면서도 뒷좌석의 2+1시트 구성을 완성한다. 전동식 조절이 가능한 2개의 개별 시트를 옵션으로 주문할 수 있다. 뒷좌석 상단까지 적재 시 용량은 총 425리터이다. 3개의 리어시트는 한 번에 혹은 개별적(40:20:40 스플리트)으로 접을 수 있으며, 트렁크 공간까지 전동식 조절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적재 용량은 최대 1,295 리터로 늘어난다.

## 세라믹 브레이크 등 확장 가능한 기본 사양 장비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의 부가세를 포함한 독일 시장 판매가격은 188,592 유로부터 시작한다.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의 기본 사양 확장 시, 포르쉐 토크 벡터링 플러스(PTV Plus) 리어 디퍼렌셜 록을 포함한 전자식 포르쉐 다이내믹 새시 컨트롤 스포츠(PDCC Sport) 롤 스태빌라이제이션과 포르쉐 세라믹 컴포지트 브레이크(PCCB) 브레이킹 시스템, 911 터보 디자인의 21인치 알로이 휠, 파워 스티어링 플러스(Power Steering Plus),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Sport Chrono Package) 및 보조 에어컨 등이 기본으로 장착된다. 모든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 모델은 최고 출력 440 마력(324 kW)을 이상을 발휘하며, 최상위 모델은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PASM)를 포함한 어댑티브 3챔버 에어 서스펜션으로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편안한 승차감을 선사한다.



더욱 강력해진 퍼포먼스와 GTS 전용 장비

## 신형 포르쉐 718 GTS, 더욱 업그레이드된 디자인과 스포츠 퍼포먼스

포르쉐는 디자인과 스포츠 성능을 강화한 신형 포르쉐 718 GTS 모델을 선보이며, 미드 엔진 스포츠카 모델 라인업을 더욱 확장한다. 새롭게 개발된 인테이크 덕트와 2.5l 4기통 박서 엔진에 최적화된 터보차저를 장착한 신형 718 GTS 모델은 최고출력 365마력(269kW)을 발휘한다. 이는 718 S 모델 대비 15마력(11kW), 자연흡기엔진의 기존 GTS 모델보다는 35마력(26kW)이 증가한 것이다. 새로운 미드엔진 스포츠카 신형 718 GTS 모델은 수동 6단 변속기가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며, 포르쉐 듀얼 클러치(PDK)를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국내 출시되는 차량에는 7단 PDK가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다. 또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기계식 리어 디퍼렌셜 록을 포함한 포르쉐 토크 벡터링(PTV), 그리고 차체를 10mm까지 낮춰주는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메니지먼트(PASM) 등 다수의 옵션 장비들이 기본 사양으로 탑재된다.

### 강력한 파워로 더욱 향상된 퍼포먼스

신형 718 GTS 모델은 1,900-5,000rpm에서 최대토크 43.85kg.m을 발휘하며 더욱 향상된 가속력과 탄력적인 주행성능을 제공한다. PDK와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장착하면, GTS 모델은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단 4.1초가 소요되며, 최고 속도는 290km/h다.

### 전형적인 GTS 모델의 특징인 다양한 블랙 컬러 요소

718 모델 라인의 GTS 모델은 기술적인 측면은 물론, 디자인적으로도 돋보인다. 차량 전면의 새로운 스포츠 디자인 에이프런은 스포티한 인상을 더욱 강조한다. 전형적인 GTS 모델의 특징으로, 프론트 라이트 모듈과 바이 제논(Bi-Xenon) 헤드라이트는 블랙 토탈 처리되었다. 차량 후면 역시, 블랙 토탈 마감의 테일 라이트와 블랙 컬러 로고 및 블랙 리어 에이프런, 그리고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 스포츠 배기 시스템의 센트럴 블랙 테일파이프가 GTS만의 유니크한 외관을 완성한다. 도어 부분의 블랙 GTS로고와 블랙 컬러로 도장된 새틴 마감의 20인치 휠은 측면 디자인을 더욱 부각시킨다.

## 고품질 알칸타라 소재와 포르쉐 트랙 프리시전 앱(Track Precision App)

인테리어 또한 GTS유전자를 그대로 담고 있다.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스톱워치는 대시보드의 센트럴 구성 요소로 통합되어 있다. 운전석과 조수석 탑승자는 다른 포르쉐 GTS 모델에서처럼 알칸타라 소재의 스포츠 시트를 즐길 수 있다. 헤드레스트에 GTS 로고가 각인된 스포츠 시트 플러스는 두 방향으로 전자식 조절이 가능하며 측면 지지력과 편안함이 더욱 향상되었다. 또한, 스티어링 휠 트림, 센터 콘솔과 암레스트 등에도 알칸타라 소재가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다. 이 밖에도 신형 718 GTS 운전자들은 포르쉐 트랙 프리시전 앱(Porsche Track Precision App)을 스마트폰과 연동해, 상세 디스플레이와 주행 자동 기록 및 분석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순수 정통의 911 에디션

## 절제의 미학, 신형 포르쉐 911 카레라 T (911 Carrera T) 공개

포르쉐가 1968년형 911 T 모델의 순수한 계보를 잇는 신형 '911 카레라 T(911 Carrera T)'를 새롭게 선보인다. 한층 가벼워진 중량, 수동 기어박스의 짧아진 변속비, 그리고 기계식 리어 디퍼렌셜 록이 적용된 후륜구동 시스템을 통해 더욱 강력한 성능과 강렬한 주행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신형 '포르쉐 911 카레라 T'의 독특한 외관은 911 카레라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최고 출력은 370마력(272kW)이다. 모델명에 투어링(Touring)을 의미하는 "T"가 붙은 이 신형 모델에는 기존 911 카레라에는 없는 다양한 혁신 장비들이 추가되었다. PASM 스포츠 새시가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어 차체를 20mm까지 낮출 수 있으며 중량 최적화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레드 시프트 패턴이 반영된 짧아진 시프트 레버 및 스포츠-텍스(Sport-Tex) 시트가 적용된다. 또한 911 카레라에서 볼 수 없었던 리어 액슬 스티어링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다.

신형 '911 카레라 T' 모델은 스포츠카 성능과 경량 구조 최적화에 주안점을 두고 디자인되었다. 리어 윈도우와 리어 사이드 윈도우는 경량 글래스 만들어졌으며, 도어 트림은 오프닝 루프가 특징이다. 흡음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옵션 사양으로 지원하는 리어 시트와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PCM)는 생략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911 카레라 T'의 공차 중량은 1,425kg로, 거의 동일한 장비를 탑재한 2인승 911 카레라 모델보다 20kg 더 가볍다.

### 스포티한 디자인과 독특한 외관

신형 '911 카레라 T'는 리어 액슬 트랜스미션을 장착한 스포츠 쿠페의 감성은 물론, 스포티한 매력을 강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차량 바디와 휠 디자인은 '911 카레라 T'를 다른 차들과 확연하게 차별화시키는 요소다. 전면은 공기 역학적으로 최적화된 프론트 스포일러 립과 아게이트 그레이 메탈릭(Agate Grey Metallic) 컬러로 마감된 스포츠 디자인(Sport Design) 사이드 미러가 특징이다. 측면은 타이탄 그레이(Titan Grey) 컬러의 20인치 카레라 S 휠을 장착해, 이 신형 모델을 더욱 쉽게 인식하도록 만든다. "911 카레라 T" 로고 역시 차별적인 측면 디자인을 완성하는 요소다. 차량 후면은 리어 리드 그릴, 포르쉐 로고, 그리고 아가타 그레이 컬러로 적힌 "911 카레라 T" 모델명이 특징이며, 블랙 컬러 마감의 테일파이프가 중앙

에 위치한 스포츠 배기 시스템을 기본 사양으로 제공한다. 외장 컬러는 블랙(Black), 라바 오렌지(Lava Orange), 가드 레드(Guards Red), 레이싱 옐로우(Racing Yellow), 화이트(White), 마이애미 블루(Miami Blue)를 옵션으로 제공하며, 메탈릭 컬러로 카라라 화이트(Carrara White), 제트 블랙(Jet Black), GT실버(GT Silver)도 이용할 수 있다.

## 순수 정통의 인테리어 콘셉트와 새로운 인테리어 패키지

탑승자 공간의 디자인 역시 순수 정통 스포츠카의 스포티한 매력을 강조했다. 운전자는 중앙부가 스포츠 텍스로 마감된 4 방향 전자식 블랙 스포츠 시트와 911 로고가 블랙으로 각인된 헤드레스트를 통해 주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신형 911 카레라 T 모델은 최초로 풀 버킷 시트를 옵션으로 제공한다. 또한, 가장자리를 가죽으로 마감한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로 완벽한 조작이 가능하며, 기본 사양으로 지원되는 모드 스위치를 통해 다양한 드라이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레드 시프트 패턴의 짧아진 시프트 레버는 '911 카레라 T' 모델만의 고유한 특징이며,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도 오프닝 루프와 마찬가지로 블랙 컬러가 적용되었다. 이 밖에도, 새롭게 추가된 T 인테리어 패키지는 레이싱 옐로우(Racing Yellow), 가드 레드(Guards Red) 또는 GT 실버(GT Silver) 컬러와의 대조를 통해 더욱 스포티한 외관을 완성한다. T 인테리어 패키지 컬러는 안전 벨트, 헤드레스트에 각인된 911 로고, 오프닝 루프, 그리고 스포츠-텍스 시트 중앙 부분 등 다양한 인테리어 구성 요소를 통해 시각적으로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다.

## 더 강력해진 중량 대비 파워와 향상된 퍼포먼스

3리터 6기통 수평대향 트윈 터보 차저 엔진을 장착한 신형 '911 카레라 T'는 1,750-5,000rpm에서 최고 출력 370 마력(272kW), 최대 토크 45.88kg.m를 발휘한다. 특히, 중량 대비 마력이 3.85kg/hp로 증가해, 향상된 퍼포먼스는 물론, 민첩하고 역동적인 주행 성능까지 보장한다. 짧아진 기어 변속비와 기계식 디퍼렌셜 록이 적용된 수동 변속기를 장착해,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911 카레라 쿠페보다 0.1초 빠른 4.5초, 200km/h까지는 15.1초가 소요된다.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포르쉐 더블 클러치(PDK)를 탑재하면,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단 4.2초, 200km/h까지는 14.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911 카레라 T' 모델의 최고 속도는 290km/h에 이른다.

새로운 엔진, 새로운 새시, 혁신적인 차량 제어 콘셉트, 폭넓은 연결성

## 포르쉐, 3세대 신형 카이엔

포르쉐가 럭셔리 프리미엄 SUV 신형 카이엔(Cayenne)을 선보인다. 이번 3세대 풀체인지 카이엔은 포르쉐 특유의 강력한 성능과 탁월한 실용성이 결합되어 완벽히 새로운 모델로 재탄생했다. 강력한 터보 엔진, 8단 팁트로닉 S 변속기, 새로운 새시 시스템과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광범위한 연결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차량 제어 콘셉트를 통해 카이엔만의 스포티한 매력과 편안함을 한층 더 강화했다.

### 역동적인 디자인: 견고한 디자인과 더욱 확장된 휠

신형 카이엔은 특유의 스포티함과 정밀함 그리고 정교함이 어우러진, 새로우면서도 친숙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포르쉐 디자인 DNA가 그대로 반영된 카이엔의 외관이 업그레이드된 스타일을 자랑한다면, 확장된 전면 공기 흡입구는 더욱 개선된 성능을 강조한다. 새로워진 수평형 엣지 라이트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도 더욱 크고 견고한 SUV의 느낌을 자아낸다. 기존 휠 베이스(2,895mm)를 유지하면서도 64mm 더 확장된 전장과 9mm 낮아진 루프 높이를 통해 우아함과 유려함을 배가시켰다. 트렁크 공간은 기존 모델 대비 100리터 증가한 770리터다.

### 911을 계승하다: 경량 새시와 새로운 제원의 휠 타이어

신형 카이엔의 새로운 디자인은 스포츠카, 오프로더, 투어링카의 3가지 새시 콘셉트가 하나로 결합된 것이 특징이다. 전동 리어 액슬 스티어링은 신형 카이엔에 최초로 적용됐다. 3챔버 기술을 적용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험한 지형에서도 지상고를 자동 조절하는 시스템으로, 스포티하고 견고한 차체 연결부와 투어링카의 주행 안정성 사이의 스펙트럼을 현저히 개선했다. 포르쉐 다이내믹 새시 컨트롤(PDCC) 주행 안정화 옵션을 사용하면 유압 시스템을 전기 시스템으로 변경해 더욱 스포티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다.

포르쉐 서페이스 코티드 브레이크(Porsche Surface Coated Brake, PSCB)라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포르쉐는 고성능 브레이크 부문을 선도하는 스포츠카 제조사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PSCB는 텅스텐 카바이드(Tungsten-carbide) 코팅의 주철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카이엔 모델에서 옵션사양으로 장착 가능하다. 텅스텐 카바이드 마감 처리로 마찰 값이 증가해 마모와 브레이크 먼지를 줄인다.

## 디지털 혁신과 어시스턴스 시스템

포르쉐 3세대 신형 카이엔은 운전자와 자동차의 연결성에 새로운 장을 연다. 포르쉐 어드밴스드 콕핏(Porsche Advanced Cockpit)은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새로운 디스플레이와 포르쉐 제어 콘셉트의 중심에는 최신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PCM)의 12.3인치 풀HD 터치스크린이 자리한다. 신형 파나마라와 함께 공개된 PCM은 음성 제어를 포함, 광범위한 디지털 기능의 직관적인 사용성을 제공한다. 기본 포르쉐 커넥트 플러스(Connect Plus)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기본 온라인 내비게이션, 실시간 교통 정보도 포함된다. 나이트 비전 어시스트는 교통 신호 인식 기능이 있는 레인 체인지 어시스트(Lane Change Assist), 레인 키핑 어시스트(Lane Keeping Assist) 및 교통 체증 어시스트, 서라운드 뷰를 포함한 파크어시스트(ParkAssist), 어댑티브 컨트롤 크루즈(adaptive cruise control system)을 포함한 포르쉐 이노드라이브(Porsche InnoDrive) 등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원 시스템 중 하나다.